

제 18장 바울 : 그 초창기

1. 바울의 출생과 배경 :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였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로서 일반 학문의 전 분야를 다루어 가르침으로 '대학 도시'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곳의 몇몇 철학자들은 이미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의 아테노도르스와 아카데미파의 네스트로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다소 시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귀족적인 엘리트 계급을 형성하였는데, 바울도 다소 시의 시민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족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그는 분명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행22:38) 따라서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지던 신분증명서인 '서관'을 필요할 때에 사용하여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람어와 히브리말을 주로 사용했지만 다소 시에서 장기간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헬라어에도 능통하였습니다. 바울은 paullus라는 로마식 이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사울이라는 유대 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바울의 성장과 회심 사건 : 바울은 유대인이었던 부모님의 엄격한 가르침에 따라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을 배웠고 또한 그 중에서도 매우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갈 1:14). 그는 그 곳에서 유대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예비 지식들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바울이 헬라의 교사들로부터 정규 교육을 받았던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헬라 문학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바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율법 교사로 임명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의 순교 사건에서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의 사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유대 율법의 절대적인 최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권위에 대한 위협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신21:23)'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처참하게 죽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음을 주장했지만 바울이 그것을 인정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신의 행동이 옳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접근했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친히 그 모습을 바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밝은 빛이 자신의 주위를 강하게 비추자 바울은 땅에 엎드렸고, 예수님께서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꾸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 의해 시력이 회복되기까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전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한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이 여전히 분명하게 유효한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자초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악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회심사건 이후로 바울은 그의 삶과 사상의 중심부에 위치해있던 율법의 절대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3. 회심 이후의 바울의 사역 :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1:17). 그곳에서 그는 유대 민족사의 초창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삶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다는 기록은 (고후11:32이하) 바울이 무엇인가 아라비아 왕의 적개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을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바탕으로 자신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는 사역을 아라비아에서 벌써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바울이 처음 회심한 이후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머물렀을 새,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에 힘썼다는 사실 (행9:19)이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한 3년간의 기간 후 바울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들 중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간 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베드로를 통해, 예수의 사역, 수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중재 없이 직접적으로 계시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보다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전수된 ‘복음의 상세한 사실’, 두 경우의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그가 전수 받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였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고후15:3). 바울은 결국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이를 피해서 짧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의 고향인 다소 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8년에서 10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바울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유대 지방의 교회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는 기록 (갈 1:22-24)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다소 시에서 접하였던 제한적인 헬라문화가 아닌, 훨씬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수준의 헬라 문화를 접하였지만, 그의 신앙과 생활의 주요한 방향이 이미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의 불투명한 시기를 지나서, 주후 45 년경에 바울은 바나바의 동역자로 지명되어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